

석면 검출제품 17개 판매중지

기술표준원, 판매업자 입건 ... 냉장고 · 자전거 · 풍선 포함

시판되고 있는 냉장고와 풍선, 자전거 등의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돼 판매가 중지됐다.

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4월5일부터 6월2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시판중인 전기난로와 냉장고, 시멘트, 벽지 등 46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, 냉장고와 풍선, 자전거, 벽지, 전기난로, 오토바이 브레이크 라이닝패드 등 6개 품목 17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7월22일 발표했다.

풍선은 46개 제품 중 네오텍스가 생산한 1개 제품에서 석면이 나와 모두 수거해 파기 조치했다.

전기난로는 검사 대상인 21개 중 와이엘무역이 수입한 중국산 제품 1개의 발열부 보완유지재에 석면이 포함되어 판매를 중지했다.

전기냉장고는 45개 중 원재주방에서 생산한 냉장용 쇼케이스의 밀봉된 압축기 내부패킹에 석면이 검출됐으나, 외부로 나올 가능성이 없어 개선 조치했다.

이륜자전거의 경우 30개 중 동그라미, 스마트자전거, 힐탑스포츠, 성우무역, 중원TECH, 키프유통, 지오닉스, 바이크월드, 알톤스포츠 등 9개사 11개 제품의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에서 석면이 검출돼 전량 판매중지 및 수거 조치했다.

오토바이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는 8개 제품 중 중국산 1개, 베트남산 1개 등 2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.

한편, 벽지는 10개 제품 중 1개에서 극소량의 석면이 검출됐으나 인쇄 코팅돼 공기중에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7/22>